

경제

- ▶ 가전 매출 늘고 기름 수요 증가
- ▶ 백화점·할인마트 동반 성장세
- ▶ 고소득·중산층 지갑 열기 시작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각종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소비 현장에서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징후들이 하나둘씩 포착되는 등 수년째 침체했던 실물경기도 회복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경기 바닥 쳤다” 곳곳 회복 청신호

각종 경제지표 호전...연구기관, 성장률 전망 잇따라 상향 조정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에어컨·냉장고 등 생활가전의 국내매출이 늘고 있으며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백화점과 할인마트도 동반 성장하고 있어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동차시장과 경기에 민감한 의류시장에는 아직도 경기회복의 훈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자업체·정유 '회색' = 전자업체는 요즘 가전제품 내수시장 매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어 희색을 띠고 있다. 올해 들어 가전제품 교체 수요가 확연히 늘어났다는 것.

올 들어 삼성전자 가전 매출은 작년 대비 에어컨은 70%, 냉장고는 10% 정도씩 늘어났다. LG전자는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예약판매 실적도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4분기 휴대전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119만대를 기록했다.

새 운영시스템(OS)인 '윈도 비스타' 출시와 맞물린 노트북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휘발유나 정유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백화점·마트 '인간인 4월' 지나 = 이른 더위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5월 들어 지난 7월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다.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매출이 2% 감소한 4월에 비하면 분위기가

향결 좋아졌다고 롯데백화점은 전했다.

현대백화점도 경인 7개점 매출 증가율이 지난달 0.1%에서 이달에는 0.5%로 0.4%포인트 높아졌으며, 신세계백화점도 지난달보다는 이달 영업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이마트도 이달 들어 매출이 개선됐다. 신규점포와 신세계마트까지 모두 포함한 매출은 지난달 제자리걸음을 했는데 이달에는 4.7% 증가했다.

편의점업계 대표주자 중 하나인 'GS 25'는 유기농 요구르트와 과일요료, 프리미엄 커피 등 상대적인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어나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매출이 작년 대비 5%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의류 '무풍' = 자동차 업계는 아직 경기회복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 실적 지표는 경기에 후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자동차업체 내수는 총 9만9천690대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0.5% 늘었지만 10만6천461대를 기록한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6.4% 감소한 상황이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의 4월 판매실적은 지난 3월 실적보다 초라했으며, 차급별 판매실적 역시 지난 3월에 비해 소형과 중형 승용차 판매가 줄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도 이번 2.4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다.

의류업체인 신원이는 주 5일제와 복장 자율화 등으로 남성 캐주얼 부문만 소폭 성장하고 있을 뿐 기타 남성복과 여성복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조금 못한 형편이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과 관련, “야당과 정치언론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로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근거없는 위기를 되뇌는 야당과 언론이 최근의 주가상승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는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주식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고 있지 않고 초우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보유하게 된 것도 야당과 정치언론 탓이라고 했다.

외국인이 2005~06년 배당금 수입과 보유주식 평가차익으로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위기론만 듣고 한국 기업의 성장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상승의 배경으로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경제체질 강화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 ▲한미 FTA 타결·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디스커버트' 해소를 꼽았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과 관련, “야당과 정치언론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로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근거없는 위기를 되뇌는 야당과 언론이 최근의 주가상승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는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주식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고 있지 않고 초우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보유하게 된 것도 야당과 정치언론 탓이라고 했다.

외국인이 2005~06년 배당금 수입과 보유주식 평가차익으로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위기론만 듣고 한국 기업의 성장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상승의 배경으로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경제체질 강화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 ▲한미 FTA 타결·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디스커버트' 해소를 꼽았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과 관련, “야당과 정치언론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로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근거없는 위기를 되뇌는 야당과 언론이 최근의 주가상승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는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주식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고 있지 않고 초우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보유하게 된 것도 야당과 정치언론 탓이라고 했다.

외국인이 2005~06년 배당금 수입과 보유주식 평가차익으로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위기론만 듣고 한국 기업의 성장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상승의 배경으로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경제체질 강화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 ▲한미 FTA 타결·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디스커버트' 해소를 꼽았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과 관련, “야당과 정치언론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로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근거없는 위기를 되뇌는 야당과 언론이 최근의 주가상승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는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주식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고 있지 않고 초우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보유하게 된 것도 야당과 정치언론 탓이라고 했다.

외국인이 2005~06년 배당금 수입과 보유주식 평가차익으로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위기론만 듣고 한국 기업의 성장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상승의 배경으로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경제체질 강화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 ▲한미 FTA 타결·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디스커버트' 해소를 꼽았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과 관련, “야당과 정치언론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로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근거없는 위기를 되뇌는 야당과 언론이 최근의 주가상승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는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주식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고 있지 않고 초우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보유하게 된 것도 야당과 정치언론 탓이라고 했다.

외국인이 2005~06년 배당금 수입과 보유주식 평가차익으로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위기론만 듣고 한국 기업의 성장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상승의 배경으로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경제체질 강화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 ▲한미 FTA 타결·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디스커버트' 해소를 꼽았다.

한·EU, FTA 체결해도 자동차 유럽 수출 제한적

자동차산업 연구 보고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유럽 자동차메이커들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확대되는 반면 국내 업체의 수출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13일 '한·EU FTA 협상전망 및 주요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하고 협상과정에서 부품업체 철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작년 기준 GDP가 14조3천억달러로 미국(12조9천억달러)을 능가하는 최대 단일시장이자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2대 수출지역으로 한·미·FTA보다 국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 부문만 놓고 보면 차 산업은 한국과 EU 모두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품목이어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과정에서 EU는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우리나라는 EU의

자동차 관련 엄격한 환경기준의 완화와 복잡한 인증절차에 대한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부문의 FTA 효과로는 고가의 프리미엄 차급 위주인 EU산 자동차를 볼때 관세철폐로 꽤 큰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돼 가격경쟁력이 높은 일본업체를 견제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확대를 계기로 업체들이 대당 수익마진의 폭을 줄인다면 가격은 더욱 내려가 수입차 시장의 확대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10%의 관세가 사라져 일본차에 뒤지는 가격경쟁력을 보완하면서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좋아지지만 FTA 발효 예상시점인 2009년이면 현지생산 규모가 60만대에 달해 수출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U의 엄격한 환경규제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수출증가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쌀로 만든 ‘쌀빵’ 드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 쌀사랑 마라톤 동호회원 400여명이 13일 삼우시민공원에서 마라톤 참가자들과 어린이들에게 쌀빵을 나눠주며 우리쌀 소비촉진 홍보를 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주택대출 ‘이자폭탄’ 현실화

금리 오름세 1년 8개월 지속...서민 가계 ‘비명’

대부업 이자 한도 연 66%→50%로 낮춘다

재경부, 법률개정 추진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이자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마련해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자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이자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 중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이자상한선을 낮추기로 한 것은 대부업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6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

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선 연 40%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에는 이자상한선을 연 36%로 정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개정안에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해 선이자 수취 금지 조항을 신설해 선이자를 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원금이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부업체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선이자를 때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가 연 50%대로 낮아진다고 해도 실제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자 폭탄이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년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출금리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서민가계는 물론 국내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 주 보다 0.02%포인트 높은 연 5.73~7.33%로 고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5.92~7.42%와 6.02~7.12%로 지난주초보다 각각 0.02%포인트 높아졌고 하나은행도 6.12~6.82%로 0.02%포인트 높였다. 농협과 외환은행도 5.82~7.02%와 6.13~6.98%로 0.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2005년 8월말 5.50%에 비해 대출 최고금리가 1.83%포인트 급등했다. CD 금리 상승폭 외에 은행 자체적인 금리감면폭 축소분과 가산금리 인상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이자수입 증가는 서민들의 비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특별한 금리우대를 받지 못한 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향후 금리가 추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연간 이자부담이 183만원이나 늘어난다. 한 시

중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대출 고객 4명 중 1명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4주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0.08%포인트로 지난 1월18일 이후 넉달간 오름폭과 맞먹는 등 최근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서민들에게 단기적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외화차입 규제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상향조정 등으로 앞으로도 주택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가 가처분 소득 축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도복권 (제232회)

| | | |
|-------------------|--------------|---------------|
| 당첨번호 | 2등보너스 숫자 | 당첨자 수 |
| 08 09 10 12 24 44 | 35 | |
| 등위 | 당첨금(원) | |
| 1 | 6개 숫자 일치 | 1,110,918,400 |
| 2 | 5개 숫자+보너스 일치 | 92,576,534 |
| 3 | 5개 숫자 일치 | 1,314,178 |
| 4 | 4개 숫자 일치 | 51,274 |
| 5 | 3개 숫자 일치 | 5,000 |

팝콘복권 (제55회)

| | |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번호 |
| 1 | 10억 | 1조 454845 |
| 2 | 5억 | 1조 454844 |
| | | 1조 454846 |
| 3 | 1천만 |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
| 4 | 1백만 | 각조 35272 |
| 5 | 1만 | 각조 828 |
| 6 | 2천 | 각조 66 |
| | | 각조 68 |
| 7 | 1천 | 각조 3 |
| | | 각조 2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길앤의원 | [남성클리닉] 간호사 및 기타서비스업무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200~1400 | 05/14 | 02-3392-5855 |
| ㈜H&T | [정규직/주5일]SK텔레콤 114인버문드 상담원 | 초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5/18 | 062-350-6333 |
| ㈜엔씨에스텍 | 전산센터 기안구축 경력자 모집 | 초대졸/경력3년 | 회사내규 | 05/20 | 02-6332-5513 |
| (재단법인)서민직업전문학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1400~1600 | 05/20 | 062-526-9100 |
| ㈜필로스메트릭 | 쇼핑몰 운영 및 웹 디자인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200~1400 | 05/20 | 062-267-8071 |
| ㈜동해리 | PC,보안,시스템,네트워크 엔지니어 채용 | 초대졸/경력2년 | 2600~2800 | 05/20 | 062-371-9100 |
|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HIMEC | 원·모바일 콘텐츠 전문과정 연수생 모집 | 대졸/경력무관 | 전액국비지원 | 05/25 | 062-380-8400 |
| ㈜한국기업진흥원 | 사무 및 경리업무 사원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5/25 | 016-629-3932 |
| 썬스 |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직원 | 초대졸/경력무관 | 2800~3000 | 05/25 | 062-955-5211 |
| 원테크 | 사무 경력사원 모집 | 고졸/경력1년 | 1200~1400 | 05/25 | 062-961-9321 |
| ㈜유원엔지니어링 | 영업직(남북관리) 사원 | 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5/25 | 062-953-6343 |
| 동해코퍼레이션(주) | 반도체 부품검사 생산직 사원 | 고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5/25 | 032-325-4726 |
| ㈜삼산기공 | 공사 및 공무관리 사원 | 대졸/경력무관 | 2200~2400 | 05/25 | 062-954-3390 |
| 엔카네트웍스(주) | [SK 연개]2007년도 광주/전주/순천 신입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600~1800 | 05/25 | 062-528-2651 |

(광주잡코리아 512-6120 제공)

“야당·정치언론 때문에 국내 투자자 손해봤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 주장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과 관련, “야당과 정치언론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로 때문에 국내 주식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근거없는 위기를 되뇌는 야당과 언론이 최근의 주가상승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는 오히려 국내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주식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고 있지 않고 초우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보유하게 된 것도 야당과 정치언론 탓이라고 했다.

외국인이 2005~06년 배당금 수입과 보유주식 평가차익으로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위기론만 듣고 한국 기업의 성장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상승의 배경으로는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경제체질 강화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리 ▲한미 FTA 타결·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디스커버트' 해소를 꼽았다.

작년 이후 신규 상장 72개사

최대주주들 평가차익 6천억

증시가 코스피지수 1,600시대를 맞는 등 활황세를 보이면서 작년 이후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최대주주들이 엄청난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상장된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63개사의 상장주식 수와 공모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신규상장 주 평가액 현황'에 따르면 이들 72개사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자본 포함)의 상장평가차익은 지난 11일 현재 5천974억원에 달했다.

작년 이후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사들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개인·기관 등 전체 주주들의 평가차익은 유가증권시장이 일부 기업의 주가하락으로 -4천475억원을 기록했으나 코스닥시장은 1조6천298억원에 달했다.

신규상장 종목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거래한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4천475억원의 (평가)손실을 봤지만 코스닥시장 투자자들은 무려 1조6천298억원의 (평가)이익을 챙겨 증시 호황으로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쓸쓸한 재미를 본 셈이다.

직장인들 소망 '해외 배낭여행'

한국씨티은행, 직원대상 설문조사

직장인들이 직장내에서 꿈꾸는 소망은 동료들과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씨티은행은 '성공을 이루세요, 씨티(Driving Success at Citi)'라는 캠페인을 열면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

동료와 해외 배낭여행을 가거나 경치 좋은 곳에서 부서 워크숍을 하고 싶다는 답변은 173표(37%)로 1위를 차지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고 싶다는 내용은 92표(20%)로 2위에 올랐다. 노트북 등 업무에 필요한 기기를 갖고 싶다는 소망은 86표(18%), 문화공연을 보고 싶다는 소망은 32표(7%)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을 하라

내년 60%선 목표달성 '비상'

지난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1년 전보다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목표달성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의 진도도 바서는 당초 야심차게 설정했던 목표의 60%선 만 넘겨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2008년 에너지 자주개발률 전망치는 5.9%를 기본으로 약간의 증감이 예상되는 정도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쓰일 석유와 천연가스의 5.9%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해당하는 분량을 실제 국내 도입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유전과 가스전에서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들어 해외자원 외교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목표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법 산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국가에너지자주개발의에서는 원래 2010년께로 설정됐던 '자주개발률 10%' 달성 목표시점을 2008년으로 2년이나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